

Right Being Over Right Doing
Jamie Lilley

Text(s): Eph 5:21-6:9

옳은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제이미 릴리

본문 : 엡 5:21-6:9

Thesis: The Bible teaches us how as followers of Jesus we are called into right being, not right doing. **논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닌 올바른 존재로 부름받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We are back in the book of Ephesians this week!

For reference:

Ephesians is an epistle, which means a letter—in this case, a letter from Paul to the church in Ephassis, but it's also written as a letter for the entire world: for Jew and Gentile, husband and wife, parent and child, master and servant. It was the mind and will of God in Paul's day; it remains a voice of inspiration in our day. We can say this letter has universal appeal and application, containing truths that have lasted for generations, continuing to resonate with people across all cultures. 시스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 또한 온 세상을 위한 편지로도 기록되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 하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영감을 주는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진리를 담고 있어 보편적인 호소력과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s an answer to the question: how do we live as and be the church? This question has been answered through the lens of religion finding its way to us today in 2024 in a world vastly different from its immediate audience. I think this difference has caused us to find comfort in structure because when things are crazy or confusing around us we look for an anchor. 이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살고 교회가 되는가? 이 질문은 종교의 렌즈를 통해 2024년 현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청중과는 크게 다른 세상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이상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답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구조에서 편안함을 찾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For this reason I think we often view our faith as a set of rules, a series of "dos and don'ts" that guide our actions. But today, I want to challenge that perspective by suggesting that being part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family of God, and the church is not about right doing—it's about right being. And it starts with our formation. 이러한 이유로 나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을 일련의 규칙, 즉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는 일련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천국,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존재에 관한 것임을 제안함으로써 그러한 관점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형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This theme of right being is something I hope you've been noticing throughout this series and the one-offs sprinkled in. We've talked about what the Kingdom of Heaven looks like and how we are pointing toward it. We've talked about our participation as individuals in the family of God and our responsibility in community. And we've talked about the transforming work that only the Spirit can do in us. 올바른 존재라는 주제는 여러분이 이 시리즈 전반에 걸쳐 주목하셨기를 바라며, 일회성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천국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는 것과 공동체에서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Recently, the Lord has been speaking to m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doing and right being in my own life, so if we've had a conversation or a pastoral care meeting you've probably heard me mention this. 최근에 주님께서는 내 삶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옳은 것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목회 모임을 가졌다면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What I mean is that sometimes—whether in individual seasons or across entire eras and centuries—we as the church, and as individuals, end up living out our faith from our heads. We rely on our thinking, our strategies, and we try to pour out, but all we're drawing from is a mind full of gears turning. Our brains work to make sense of things, but that's not where true faith lives. 내가 의미하는 바는, 개별 계절이든, 전체 시대와 세기에 걸쳐든, 때때로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전략에 의지하고 쏟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끌어내는 것은 오로지 톱니바퀴만 돌리는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작동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사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Today we're looking at Ephesians 5:21-6:9. Many of us will know this passage as the instructions for Christian households. This is a passage that taken at surface value is a heady passage. It's about knowing what's right and doing that thing. But through asking some questions and digging a little, it also reveals a deeper truth about our identity in Christ.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지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구절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조금 파헤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더 깊은 진리도 드러납니다.

Ephesians 5:21-6:9(NIV)

21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22 Wives, submit yourselves to your own husbands as you do to the Lord. **23** For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a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his body, of which he is the Savior. **24** Now as the church submits to Christ, so also wives should submit to their husbands in everything.

25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26** to make her holy,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27** and to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 without stain or wrinkle or any other blemish, but holy and blameless. **28** In this same way, husbands ought to love their wives as their own bodies. He who loves his wife loves himself. **29** After all, no one ever hated their own body, but they feed and care for their body, just as Christ does the church—**30**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31**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32** This is a profound mystery—but I am talking about Christ and the church. **33** However, each one of you also must love his wife as he loves himself, and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6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2** “Honor your father and mother”—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3**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4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5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respect and fear, and with sincerity of heart,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6** Obey them not only to win their favor when their eye is on you, but as slave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your heart. **7** Serve wholeheartedly,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 not people,⁸ because you know that the Lord will reward each one for whatever good they do, whether they are slave or free.

9 And masters, treat your slaves in the same way. Do not threaten them, since you know that he who is both their Master and yours is in heaven, and there is no favoritism with him.

21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22 아내들이여,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23**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교회의 구주시니라 **24**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흠 없고 빛나게 빛나는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름진 것이나 다른 흠이 있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느니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몸을 먹이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31**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32** 이것은 크나큰 비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 그러나 여러분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6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5 종들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땅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6 여러분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7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8 이는 종이냐 자유인을 막론하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임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9 그리고 주인들이여, 종들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십시오.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여러분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Understanding the Context 맥락 이해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this passage is crucial and we would be doing it a huge disservice if we took it at face value. Let's break it down:

****Thing #1:**** The instructions Paul gives, while specific to the culture of his time, have sparked much debate and have been horribly misused throughout history. We must approach these texts not as rigid rules but as reflections of deeper, spiritual truths otherwise we can find ourselves perpetuating counter kingdom values like oppression and abuse. ****사유 # 1:**** 바울이 제시하는 지침은 당시의 문화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끔찍하게 오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더 깊고 영적인 진리의 반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압과 학대와 같은 반대 왕국의 가치를 영속시킬 수 있습니다.

****Thing #2:**** This passage we know is nestled in Ephesians, a letter for all. While it provides guidance for Christians living in specific household roles—husbands and wives, parents and children, masters and servants—not every follower of Jesus fits into these categories. This invites us to discover deeper truths beyond what's immediately obvious. ****두번째 :****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편지인 에베소서 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등 특정한 가정 내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을 제공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명백한 것 이상의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I want to offer to you today my interpretation of these sections. I want to invite you into my reading and wrestling with the Bible and challenging passages. You don't have to agree with me. This is just what I've learned and taken from it.

In the Husbands and Wives section we have the words *submit* and *head* which have

been the source of the most debate.

In Greek, the word "submit" comes from the term *hypotassesthe*, which can mean different things depending on the context. In a military sense, it refers to arranging forces under a leader's guidance. Outside of warfare, it implies a voluntary attitude of cooperation, responsibility, and obedience. The Bible doesn't call wives to be inferior to their husbands but to be cooperative helpers. Husbands, in turn, are called to love their wives with the same selfless, sacrificial love that Christ shows the church (from verse 25). hypotassesthe * 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의미에서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 군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 밖에서는 협력, 책임, 복종의 자발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보다 열등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협력하여 돕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것과 같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25절).

The word "head" is *kephalē* which can be translated to "source of life". We often interpret "head" as "authority over." but in tandem with the context of the submit word, what I see is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n exchange of sacrifice, responsibility, and life all through love. "머리"라는 단어는 *케팔레*로 "생명의 근원"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를 "위에 있는 권위"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제출이라는 단어의 맥락에서 내가 보는 것은 상호의존적인 관계, 즉 사랑을 통한 희생, 책임, 생명의 교환입니다.

The next section (Ephesians 6:1-4) teaches children to obey their parents, based on one of the Ten Commandments. Fathers are instructed not to provoke their children but to raise them according to God's discipline and instruction. When I read this I think: "there's no way this principle is limited to fathers." For one, mothers are left out—what if mothers, uncles, or aunts said, "The Bible didn't name me specifically, so it doesn't apply to me"? That would be absurd. When the Bible gives specifics, it's not about excluding anyone but rather providing a model for behavior. 다음 부분(에베소서 6:1-4)에서는 십계명 중 하나에 기초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대로 양육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원칙이 아버지들에게만 국한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머니는 제외됩니다. 어머니, 삼촌, 이모가 "성경에는 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What I see here is instruction to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raising up the next generation. When you are responsible to teach and guide, you are responsible to be in a healthy place to do that. Provoking someone is a reaction and not a response from formation.

Moving to verses 5-9, Paul addresses masters and slaves, urging masters to treat them fairly, knowing that Jesus is King of all people. A King who does not have favorites. This teaches that in God's eyes, all are equal.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해 건강한 장소에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극하는 것은 반응이지 형성에 따른 반응이 아닙니다. 5-9절로 이동하여 바울은 주인과 종들에게 말하면서 주인들에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왕이심을 알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왕.

이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I'm going to pause for a second because my guess is that that was a lot of information and perhaps a perspective you hadn't heard before. I recognize there might be uncomfortable bits but I think it presents an opportunity for us to examine our beliefs and values. I think there could be an invitation from the Spirit if we listen.

What's resonating with you? What's made you irritated? What questions do you have? What's coming up? 내 추측으로는 그것이 많은 정보이고 아마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관점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영의 초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공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짜증나게 만들었나요? 어떤 질문이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Living in the Spirit: A Call to Ongoing Transformation 성령 안에서의 삶: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부르심

This set of household instructions is also found in Colossians. Colossians 3:18-4:1.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ith Colossians being slightly shorter, but what they share in common is also a bit of context.

Just before this set of household instructions, Paul gives instructions on the Holy Spirit. He speaks about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ch is not a one-time event but a continual process. If you find yourself feeling distant from God or sensing that something is missing in your faith despite doing all the "right" things, perhaps your invitation today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 가정 지침 세트는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18-4:1. 골로새서가 약간 짧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약간의 맥락입니다.

이 가정 지침 직전에 바울은 성령에 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인 성령 충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올바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받거나 당신의 믿음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아마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I fear we often shortchange ourselves in the fullness of the Christian life by thinking that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repentance are one-time occurrences. Our life in Christ is a continual return to the feet of Jesus and a continual return to the body He's designed for us. Paul touches on this. Believers should not merely "get by" with the bare minimum of what is expected. Our life in Christ is about an ongoing, deepening relationship, not just checking off a list of religious duties. 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과 회개를 일회성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부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몸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신자들은 기대되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그럭저럭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화되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Even with the reminder and encouragement that the Spirit brings us life to our rigidity, it's so easy to find ourselves back in passages like this discouraged.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함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격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절에서 다시 낙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The Challenge of Difficult Passages 어려운 구절의 도전

This is a difficult passage. The challenge with difficult passages is they present us with a mirror. They reveal to us or remind us of the places we're hurt and how we perpetuate hurt. Last week we did baptisms. I talk with the people beforehand saying “when you enter into the waters of baptism, you understand the weight of the brokenness of the world. Either you've done things to cause hurt or others have done things that have hurt you, you've been living under the weight of a broken world.” 이것은 어려운 구절이다. 어려운 구절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거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상처받은 장소와 상처를 어떻게 영속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거나 상기시켜 줍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침례식을 했습니다. 저는 미리 사람들에게 “세례의 물에 들어갈 때 세상의 부서진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상처를 주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였거나, 당신은 무너진 세상의 무게 아래 살아왔습니다.”

I imagine you're the same way. You sit in here today with wounds. I know it because I do too. Part of stepping into those waters is taking a stand against the death of the world. Holding up a mirror, examining your life and perhaps recognizing your brokenness. Then saying no longer will I be held captive to those things. Instead I will repent the brokenness and walk into the transformed, formed life.

The essence of Paul's teaching is about living out the transformative love of Christ. The Gospel is good news for all people. It's the good news that you can be transformed from being lost to being found, being dead to being alive.

This is what Jesus wants for all of us. 나는 당신도 같은 생각이다. 당신은 오늘 상처를 안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일부는 세상의 죽음에 맞서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고 당신의 삶을 조사하고 어쩌면 당신의 상처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깨어짐을 회개하고 변화되고 형성된 삶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발견되는 상태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 있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Right Being in the Family of God 올바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Band can come back out here

You might be thinking - ok we're off topic because this passage is talking about relationships not about personal formation. And you'd be almost right. The health and longevity of your relationships will result from your personal formation, which happens through time spent with Jesus. *밴드는 여기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개인 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옳을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의 건강과 장수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당신의 개인적인 형성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Paul's instructions extend beyond these ancient household dynamic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utual respect, kindness, and love. Our relationships should be marked by a Christ-like attitude, where each person sees the other through the eyes of God. This is where the concept of "right being" comes into play. Being part of the family of God means that our actions should naturally flow from our identity in Christ. We are not merely called to follow rules, but to sit with Jesus in our brokenness to allow the Spirit of the living now, not just then, God to enter the depths of our lives and transform us in a way that only God can. 바울의 지시는 상호 존중, 친절,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고대 가정의 역학을 넘어 확장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서로를 보는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존재"라는 개념이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지 규칙을 따르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 있는 자의 영이 우리 삶의 깊은 곳에 들어오시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의 깨어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니다.

This is true right doing: getting in the presence of God.

Right being pours out of that.

What does "right being" look like? 이것이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존재가 쏟아져 나옵니다.

"올바른 존재"는 어떤 모습인가요?

Through the Husbands and wives instruction we know it's mutual submission to one another in reverence for Christ and finding life in other people. 남편과 아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압니다.

The Children and Parents instruction clues us into the kingdom value of legacy. It matters how

you got to where you are and it matters what you leave. We are responsible to care for the children - yes the actual children, but also those who are new in the faith. This has to come from an outpour of our own healing. 자녀와 부모 교육은 우리에게 유산의 왕국 가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 어떻게 왔는지도 중요하고, 무엇을 떠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치유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From the Slaves and Masters instruction we are reminded of the promise of God: Grace plays no favorites. Your status doesn't matter to God. What you can bring doesn't matter to God. God just wants you - all of you just the way you are. 노예와 주인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됩니다. 은혜는 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위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을 원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Communion

Benediction 축복

As we reflect on what it means to be the family of God, whether in our homes or in our church community, let us remember that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se relationships depend not on rigid adherence to rules, but on mutual submission, love, and the continual filling of the Holy Spirit.

May we be people who enter into the presence of Jesu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uild healthy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면서 이러한 관계의 건강과 복지는 엄격한 규칙 준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종과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하며,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